

# 의료·문화 행복버스 출발

## 무주군, 김천·영동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행복버스 운행 시작

무주군은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2015~2017) 일환)가 등면을 끝내고 운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무풍면 한치마을회관을 시작으로 운행에 들어간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는 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충북 영동군이 협력해 의료·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김천시에서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보건소 자체 사업을 연계하는 의료버스(첨단기능 의료 장비와 시설을 갖춘 대형버스)를, 무주군에서는 영하 상영과 건강 제조교실, 건강 관리교육 등을 진행하는 문화버스(이동식 영상물 상영차량)를 주관한다.



삼도봉생활권 산골마을 의료·문화 행복버스.

역 177개리 60개 권역에서 진료와 영상물 상영을 진행한다.

문화인 문화예술 담당은 "운영 첫 해인 지난해에도 177개리 3,443명의 주민들이 이용해 큰 호응을 얻었다"며 "제 지역 진료 의사 등 보건 관계자들을 비롯해 문화사업 담당자들이 만나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고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올해는

더 많은 주민들이 누리고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도봉 지역행복생활권은 행복버스 운행 외에도 농어촌생활용수 개발 등 행정구역 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으로 호평을 받으며 지난해에는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로부터 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무주군, 드림스타트 부모교육 실시

## 8일 구성에 감사 초청 강연

무주군은 오는 8일 저녁 7시 전통문화의 집 대강당에서 드림스타트 부모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건전한 성 가치관을 심어 올바른 성문화를 조성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되는 것으로,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대표 구성에 씨를 강사로 초빙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롯해 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등에 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부모들로부터 직접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최동철 드림스타트 담당은 "아이를 키우면서 굉장히 중요하고 예민한 사안들인 만큼 이번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이해와 마음가짐을 되짚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구성에 감사 특유의 친근감 있는 강의를 들으며 '성'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지역 소식통

##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장수군은 지난 1월부터 장수군 작은 목욕탕의 이용이 어려운 5개면(반암면, 장계면, 천천면, 계남면, 계북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목욕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군과 협약을 체결한 장수호텔목욕탕(반암면), 창명사우나(장계면), 나봄온천(천천면)에서 목욕권을 사용하면 본인 부담금 1,500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목욕권은 이용대상자에게 연 12개가 지급되며, 올해 12월 20일까지 지원된다. 또한 협약 체결된 목욕탕 중 5명 이상 이용 시에는 해당 업체 차리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장수온천호텔 목욕탕 : 063) 353-5555, 장수힐스온천(나봄온천) : 353-8855으로 전화하면 된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군, 주민과 소통하는 군기본계획 수립 박차

##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 실시

완주군이 주민과 소통하는 군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계획수립 단계부터 주민의 참여유도 및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군민과 함께하는 완주 미래상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설문조사와 13개 읍·면 순회 주민간담회를 실시했다.

6일 군은 '다함께 열어나가는 으뜸도시 완주' 실현을 위해 군의 미래지향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

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군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2018년 상반기에 모든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군이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도시미래상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이다.

각종 지표설정을 비롯해 공간구조, 토지의 수요예측 및 용도배분, 교통 및 물류체계, 경관 및 녹지 등의 계획을 포함하게 된다.

이에 군은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 2035년 완주 군기본계획(안)의 완성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모든 군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신세희 도시개발과장은 "상반기에 군기본계획(안) 작성을 마무리해 하반기에 관계전문가와 군민이 참여하는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의견을 들은 후 도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 초청

# 진안·무주 지질공원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진안·무주군은 6일 진안 산악초타운 홍삼실에서 진안·무주 지질공원 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진안·무주 지질공원 해설사 14명을 대상으로 전북대 지구환경과학과 오창환 교수를 초빙해 진행됐다.

오창환 교수는 "진안·무주지역은 국내외에서 보기 드문 역암으로 구성된 마이산과 국내 유일한 변성기원

구상암인 무주 구상화강편마암을 보유하고 있다"며 "백악기 인리형 분지형성과정과 고원생대 지구조운동 해석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으로서 지질학적으로 보존 및 활용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진안군 지질공원 해설사는 현재 10명으로 지질명소인 마이산과 구봉산, 천반산, 윤일암반암, 김버터형 삼각주에 배치돼 활동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완주군, 희망·내일키움통장 신규자 모집

## 17일까지 방문 신청

완주군은 저소득층의 자산형성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17년도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Ⅱ, 내일키움통장) 1차 신규가입자를 이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일하며 저축하는 저소득층이 목돈을 모아 빈곤에서 벗어나기 위한 사업으로, 각 통장별 신청대상 및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다.

이중 희망키움Ⅰ은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로 총 근로소득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월평균 45만원(4인가구 월소득 160만원 기준)을 지원해 3년 후 탈수급을 조건으로 약 2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키움Ⅱ는 일하는 주거 및 교육수급가구와 차상위가구로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현재 근로활동을 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본인이 매월 10만원을 3년간 저축하면 정부에서 1:1매칭해 총 720만원의 자립금을 받을 수 있다.

내일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연속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이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을 저축하면 1:1 정부지원금 매칭뿐 아니라,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한 수익금까지 추가 적립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마련된 자립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 및 자녀의 고등교육비 및 기술훈련비, 사업창업 및 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나 군청 사회복지과 복지일자리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진안군, 인구정책 전담부서 신설

진안군은 지난 1월 2017년 상반기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구늘리기 정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인구정책 전담부서는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인구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중·장기적 인구 늘리기 대책을 추진한다.

특히 전입 유도와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출산율은 높이고 인구유입 최대화와 유출 최소화를 통해 지속적인 인구 증가의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말 진안군 인구는 26,069명으로 최근 5년간 2,404명이 감소, 매년 500여명씩 감소 추세로 머지않아 인구 2만5,000명선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에 군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공동화 현상 가속화와 지역경제 약화요인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적극 대비할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 “병해충 발생 사전에 차단해요”

## 장수군,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협의회 개최

장수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과 경영비 절감으로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작물 병해충 지원방제 협의회'를 개최했다.

병해충 방제협의회는 9억 9,9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벼, 배추, 고추, 과수 등 7개 분야 9,828ha에 대해 전년도 예방결과를 바탕으로 대상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방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군에 따르면 금번 지원방제를 통해 병해충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방제효과를 높일 수 있으며, 어려운 현실에 처한 농업인에게 경영비절감으로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식물병역법'에 따른 금지급병

인 과수화상병은 발생하면 과원을 폐원해야하는 무서운 병으로 예방적인 방제가 필요하고,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은 2015년부터 관내 발생면적이 급증하는 추세에 있어 적극적인 방제를 통해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군농업기술센터 서정원 소장은 "기상분석과 함께 지속적인 예방을 통해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신속한 발생정보 제공과 현장지도도 강화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미리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마을이장을 통해 읍·면 산업담당부서로 신청가능하며, 추후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상자 확대 시행

## 벼 이외의 콩 등 작목 추가

완주군은 6일 군청 4층 중회의실에서 지역내 5개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벼 재배 농가의 농업소득이 추수철인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등의 경제적 부담이 가계부채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에 착안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농민에게는 가을철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농협 자체 수매대금의 일부

(60%)를 매월 월급형식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지역농협에는 이자와 대환수수료를 군비로 지원한다.

완주군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간 69명에 대해 3억5000만원을 매달 20일에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월급으로 지급했다.

특히 2017년에는 더 많은 농업인이 월급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벼 이외의 콩 등 작목을 추가하고, 매달 월급 지급방식과 영농철(4~5월) 집중 지급 방식 등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완주=이종복 기자

##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무주경찰, 대회장 주변 항공순찰

무주경찰서(서장 내영민)는 6월22일 ~ 30일까지(9일간) 개최되는 무주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성공개최 및 산악지역 등산객 안전 등 관내 치안상황을 살펴보기 위해 6일 무주군 일원을 서장, 과장 등이 항공 순찰을 실시했다.

이번 항공순찰은 전북형의 지원을 받아 세계태권도대회 관련, 주변 취약지역 점검 및 관내 중요시설, 지형지물, 주요 목지 등을 확인하여 각종 테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실시했으며 범죄 사각지대를 선정 하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내영민 서장은 "대회기간 중 사건·사고가 발생치 않도록 주요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강조하는 한편 지역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치안활동을 한층 강화하여 주민이 공감하는 경찰활동을 펼쳐줄 것"을 당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 진안군의회, 읍·면 간담회 나서

진안군의회(의장 박연석)는 7일부터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공휴일 제외)으로 각 읍·면별 지역 현안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하여 11개 읍·면 간담회를 실시한다.

제7회 의회에 들어 최초로 시행되는 11개 읍·면 간담회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보고 듣고, 느끼야 한다.는 것을 취지로 추진된다.

읍·면 간담회 일정은 ▲7일 부귀면·주천면, ▲8일 용담면·백운면, ▲9일 상진면·진안읍, ▲10일 안천면·동향면, ▲13일 정천면·성수면·마령면 순으로 진행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 무진장소방서, 수중탐색장비 이용 진안 월포대교서 실종자 시신 인양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 119구조대는 지난 5일 오후 4시 25분경 덕진경찰서에 실종 접수된 강도씨(73)의 시신을 진안군 상진면 월포대교 아래(용담면)에서 인양했다.

지난 5일 오전 9시 31분에 신고가 접수되어 현장으로 출동한 119구조대는 실종자의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를 토대로 인근 수색을 실시하던 중 월포대교에서 실종자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수난구조보트를 이용하여 월포대교 아래로 접근하여 수중영상탐지기 등 수중탐색장비를 이용, 수심 약 10m 지점에서 실종자를 탐지한 119구조대는 실종자의 시신을 인양했다.

/진안=우태만 기자·무주=전문선 기자